

‘KT 차기 CEO 후보’ 전현직 4명 압축... 디지코 글로벌 확장

(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

정치권 출신, 장·차관 등 탈락
원칙 지켜 ‘낙하산 논란’ 차단

“실질성과 창출·DX시장 리딩 할
매니지먼트 리더십중심 후보 검증”

KT 지배구조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지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차기 대표이사 면접대상 후보자를 전·현직 KT사장들로 꾸렸다.

구현도 현 대표가 여론의 압박에 물러나면서 정치권 내정설이 유력화했지만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KT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치적 외풍(外風) 논란에 중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낙하산’ 논란을 차단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KT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선정한 차기 대표이사 후보 심사대상자(가나다순)는 박윤영 전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Enterprise부문장·부사장



윤경림
Transformation부문장·사장



임현문
전 Mass총괄·사장

장),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 임현문 전KT Mass총괄(사장) 등 총 4인이다. 사외인사 2명, 사내인사 2명이 각각 선정된 것이다.

그동안 유력후보로 거론돼 왔던 정치권 출신이나 장관·차관을 지낸 후보자는 대표 후보자에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KT 내부는 물론 통신업계에서도 크게 우려돼 왔던 ‘낙하산 인사’들은 모두 탈락한 것이다.

이번 KT 대표 후보자 선정은 KT가 디지털플랫폼 기업으로 제대로 된 역할

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빠진 것이다.

KT 인선자문단측은 “급변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환경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T 리더십’과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DX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리더십’을 중심으로 사내의 후보자들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인선자문단 관계자는 또 “사내 후보

자의 경우, 1차 압축한 후보들 중 외부 전문가의 리더십 진단과 그동안 경영 성과를 고려해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T 이사회는 이번 대표이사 후보 면접 심사 기준으로 ▲DX 역량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변화와 혁신 추구 ▲기업가치 제고 ▲ESG 경영 강화 등을 기준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4명의 공통 분모는 서울대 출신으로 박윤영·윤경림·신수정 등 3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또 임현문 전 사장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박윤영 전 사장(62) 및 임현문 전 사장(64)은 이번이 KT 대표로 2번째로 도전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3년 전 KT 대표 경선에서 구현도 대표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최종에서 탈락했다.

박 전 KT 사장은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그는 최근까지 KT에

몸을 담았으며, KT 내에서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담당했다. 빠른 추진력으로 성과를 내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전 사장은 KT에서 소비자 및 마케팅 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KTF 마케팅연구실장, 홈고객전략본부장을 지냈다. 2010년 퇴직 후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나 2014년 KT로 복귀해 KT 메스총괄사장을 지낸 바 있다.

이와 함께 내부 인사 중 유력후보로 꼽히는 윤경림 사장(60)은 통신 3사를 모두 경험한 ‘통신 전문가’로 2019년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했다 2021년 다시 KT로 복귀해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를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KT와 현대자동차의 7500억원대 지분 맞교환, CJ그룹과 콘텐츠 동맹을 주도해 핵심적인 성과를 수행했다.

신수정 부사장(59)은 SK 출신으로, 2014년 KT로 이동한 후 정보보안단 및 IT 기획실장을 지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김동선의 한화갤러리아 ‘독자 경영’ 나서

한화솔루션 합병 2년만에 분리
유통부문 사업승계 본격화 판단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분리해 ‘독자 경영’에 나선다.

한화솔루션에 합병된 지 2년 만에 다시 분리되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갤러리아 부문 전략본부장(사진)의 경영 능력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을 두고 김 본부장의 유통 부문 사업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화갤러리아는 한화그룹의 지주사인 (주)한



인적 분할 됐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갤러리아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재상장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동선 본부장이 이끄는 갤러리아 부문의 프리미엄 리테일 등 유통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화의자회사로 변경된다. 갤러리아가 2021년 4월 한화솔루션에 흡수·합병돼 사업부으로 있는지 2년 만에 다시 신설 법인으로

하반기 미국 파이브가이즈 버거를 국내에 들여오는 등 유통 부문에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갤러리아 부문 신사업전략실장에서 기존 신사업전략실과 함께 기획과 인사 등의 업무를 통합한 전략본부장을 맡으며 경영 전반 참여로 역할을 확대했다. 올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에도 처음으로 참석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의 매출 5327억원, 영업이익 373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3.5%, 29.1% 실적 개선을 이뤘다. /양성운 기자 ysw@



(왼쪽부터) 티론 최백준 대표, 한글과컴퓨터 진성준 본부장, kt cloud 윤동식 대표, 티맥스오에스 심훈 상무, 안랩 강석균 대표, 씨유박스 남운성 대표. /kt cloud

KT클라우드, 공공 DaaS 플랫폼 도입 박차

티론·안랩 등 5곳과 MOU 체결

kt cloud는 티론, 한글과컴퓨터, 티맥스오에스, 안랩, 씨유박스와 ‘국산DaaS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kt cloud 윤동식 대표, 티론 최백준 대표, 한글과컴퓨터 진성준 본부장, 티맥스오에스 심훈 상무, 안랩 강석균 대표, 씨유박스 남운성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aaS(Desktop as a Service)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 데스크톱(VDI)과 앱

을 통해 시간, 장소, 단말 제약없이 업무가 가능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협약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스마트 업무환경 전환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VDI 솔루션, 개방형 운영체제(OS), 엔드포인트(Endpoint) 보안 솔루션, 사용자 인증 솔루션이 통합된 공공DaaS 플랫폼을 위해 협력한다. 보안성, 안정성, 편의성이 강화된 E2E(End to end) 공공DaaS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DaaS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윤정 기자

MS, 윈도우11 검색엔진에 챗봇 ‘빙’ 탑재

아이폰 사용자 위한 폰링크도 공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생성 AI(인공지능) 챗봇 ‘빙’ (Bing)을 PC 운영체제에도 탑재하며 Bing 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챗봇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MS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윈도우 11의 주요 업데이트 모습을 공개하고 작업표시줄 검색상자에 새로운 버전의 Bing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폰링크도 새롭게 공개했다. MS는 이번 주요 업데이트는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윈도우와 아이폰 사용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로운 버전의 ‘빙’의 챗봇 버튼이 눈에 띈다.

파노스 파네이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제품 책임자는 “윈도우 PC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일상에 가까워졌으며, 이는 AI의 도입이 이끄는 새로운 컴퓨팅 흐름에 따라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새로운 AI 시대에 맞춰 발표되는 윈도우 11의 주요 업데이트는 사람들이 PC에서 작업하는 방식을 재창조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윈도우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만으로 Bing이 탑재된 검색상자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일반 사용자가 Bing을 이용하기 위해선 대기 등록을 한 뒤 MS의 승인을 얻으면 프리뷰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

MS 측은 챗봇 ‘빙’ 윈도우 탑재 소식을 알리며 “사용자들이 검색상자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업데이트 버전 사용방법에 따라해봤다.

윈도 하단 시작 버튼 옆의 찾기 상자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와 함께 챗

봇 버튼이 나왔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챗봇 ‘빙’을 체험할 수 있는 엡지 브라우저 창으로 연결됐다. 전 버전과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빙’ 버튼이 눈에 띄긴 했다.

다만 이번 업데이트로 검색엔진에 탑재된 ‘빙’ 버튼은 모든 윈도우에 배치되는 건 아니다. 2021년 배포한 윈도우 11에만 배치될 예정이다.

MS는 Bing 탑재를 필두로 신규이용자 확보, 챗봇 시장 선점, 윈도우 11 보급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한다.

또 그간 아이폰 사용자들의 윈도우 활용이 불편하다는 불만을 고려해 ISO용 폰링크를 출시했다. 이제 아이폰 사용자는 윈도우 11 PC로 작업을 하는 동안 중요한 전화나 문자를 놓칠 일이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가 아이폰 사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윈도우 포토 앱을 아이클라우드와 통합한 바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틱톡 파트너 숏뜨, 팔로워 1억명 돌파

출시 1년여 만에 연매출 30억 성과

숏뜨가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뉴 노멀로 각광받고 있다. 숏뜨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뜻하는 말로 그 위력이 뛰어나 ‘15초의 마법’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가운데 틱톡 공식 파트너 ‘숏뜨’가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바탕으로 굵직한 성과들을 달성하며 더욱 활발한 사업 진행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숏뜨 토탈 솔루션 기업 숏뜨는 참신한

캠페인 기획과 1억 3500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 영향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출시 1년 여 만에 연매출 약 30억원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숏뜨가 보유한 팔로워 수는 틱톡 1억 1700만, 유튜브 1800만으로 지난해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분야에서 단숨에 메이저 그룹에 진입했다.

숏뜨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스포티파이 등 국내외 유수의 파트너 기업들을 위한 개성있는 숏뜨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빛나 기자